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21	06. 28	07. 05
대표 기도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정용현 집사
성경 봉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박재기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민4~23장)
2. 주보는 각 좌석에 비치됩니다.
3. 기도 - 흠어져 있는 한민 식구들의 영, 육간 강건을 위하여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5.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부활절 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20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이수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대하 34 : 14 - 21 (구p705) 이상호 목사
(2.Chronik341:14-21)
- 설 교 Predigt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205장 다같이
- 현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유미경 집사

오로지 말씀만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려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려 하는 것은 모두 자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찾는 것은 온 세상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찾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컷 남의 인생만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앞에 펼쳐진 세계는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그리고 앞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서 미리 준비하게 해 줍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결혼해도 괜찮고, 좀 늦게 자녀를 낳아도 괜찮고, 좀 늦게 집을 장만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최고로 비참해 집니다. 그것은 다시 무지와 미신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기로도 아니고 경제적인 기로도 아닙니다. 말씀의 기로입니다. 지금 말씀의 등불이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찾으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에 갈급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헐고 다시 세워라 / 김서택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기보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 T. F. Tenny -